

아주대병원 '경기남부 직업병 안심센터' 개소



아주대병원이 7월 26일 본관 지하 1층 아주홀에서 '경기남부 직업병 안심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준성 아주대병원장, 신성재 진료부원장 등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박종일 과장,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홍성지 과장,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오기석 산업보건센터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 개회사 및 인사말 △ 환영사 △ 축사 △ 직업병 안심센터 소개 △ 현판 제막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직업병 안심센터는 고용노동부가 2022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직업성 질병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 의심 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근로자들의 직업성 질병을 찾아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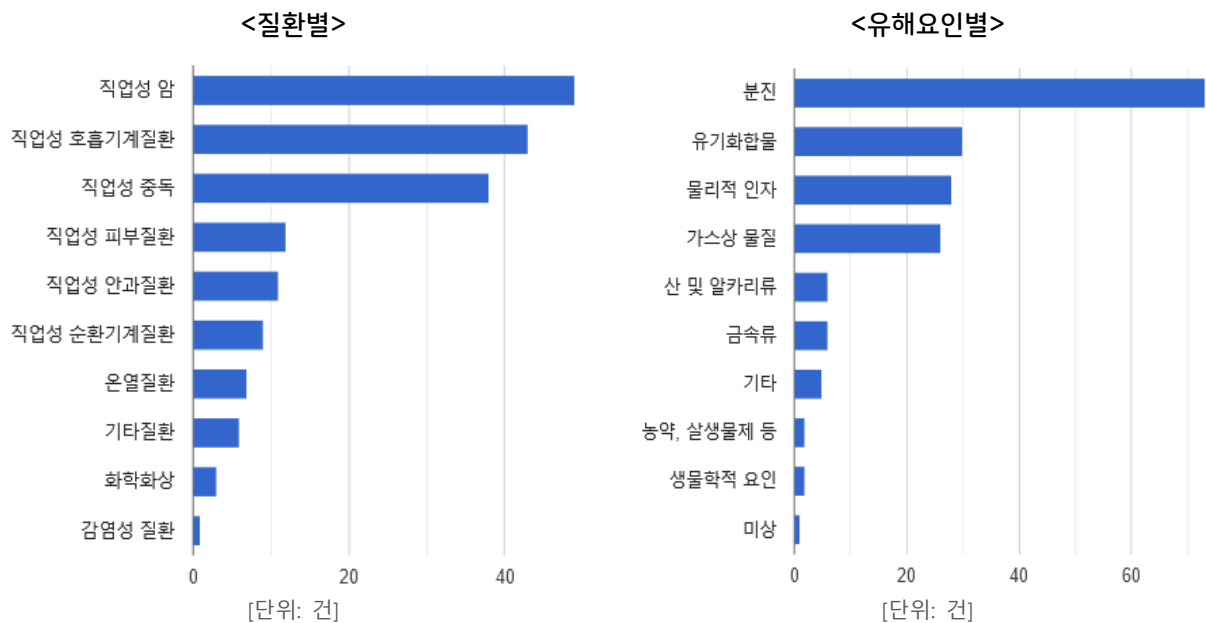
특히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급성 중독 등 치명적인 직업성 질병의 사전 예방 및 산업보건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현재 전국 6개 권역, 10개 직업병 안심센터(거점 병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업성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환자 본인이 직접 지역별, 거점 직업병 안심센터 또는 가까운 직업환경의학과 병원을 방문(혹은 전화) 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협력병원 등의 의사, 간호사 및 의료 종사자는 진료과 혹은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가 직업성 질환이 의심되면 직업병 안심센터(혹은 직업환경의학과)로 연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재범 직업병 안심센터장(직업환경의학과)은 “아주대병원이 위치해 있는 수원을 비롯해 주변 오산, 평택, 화성 지역 등에 많은 산업체가 밀집해 있다”며 “지난 30여 년간 유해 환경작업장의 안전성 평가, 근로자의 건강 진단, 직업 및 환경 관련 질환 진료·예방 활동 등을 펼쳐 온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남부 직업병 안심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준성 병원장은 “올해로 개원 30주년을 맞은 아주대병원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료기관이 되고자 꾸준히 많은 공공의료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번 직업병 안심센터 개소를 통해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직업병 사례 통계 - 중부 직업병 안심센터 2024년 06월 (2024.06.01.~2024.06.30.)



2024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부직업병안심센터에 총 179건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를 질환별로 분류하면 직업성 암 49건, 직업성 호흡기계질환 43건, 직업성 중독 38건, 직업성 피부질환 12건, 직업성 안과질환 11건, 직업성 순환기계 질환 9건, 온열질환 7건, 기타질환 6건, 화학화상 3건, 감염성 질환 1건 등이었습니다. 추정 유해요인별로 분류하면 유기화합물 30건, 물리적 인자 28건, 가스상 물질 26건, 산 및 알칼리류 6건, 금속류 6건, 기타 5건, 농약, 살생물제 등 2건, 생물학적 요인 2건, 미상 1건 등이었습니다.

직업병 사례

“여름철 옥외작업자에서 발생한 열경련 ”

40대 남성으로 건설 근로자이다. 내원 당일 오전에 야외에서 작업을 수행하던 중 12시부터 전신쇠약 증상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하였다. 작업자는 수액과 근육진통제 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호전되어 귀가하였다.



온열질환이란 외부로부터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발되는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 등을 통칭하는 고열로 인한 건강장해를 말하며, 온열질환자는 매년 약 500~800명 발생하고 있다. 온열질환은 5월~9월(특히 폭염이 잦은 7월~8월)에 옥외작업자, 온열현장 작업자(공사 현장, 조경, 삼림, 농사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장에서는 작업 시작 전 체감온도의 예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체감온도가 31℃가 넘어가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 1) 그늘 : 그늘막 또는 차광막(햇볕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재질), 바람이 통해야 함, 그늘 아래 의자, 돛자리, 음료수대 등 비품 설치, 소음, 낙하물, 차량통행 등과 같은 위험한 요인이 없는 장소에 설치, 가능하면 실내 휴게실 마련.
- 2) 물 : 시원한 물을 충분히 준비하여 작업자들이 소량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실 수 있게 함.
- 3) 민감군 확인 : 과거온열질환 경험자, 만성질환 및 내분비질환이 있는 사람(고혈압, 저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뇌심혈관질환 등), 고령자(65세 이상), 불침투성 작업복을 착용하는 자,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의 노동강도로 일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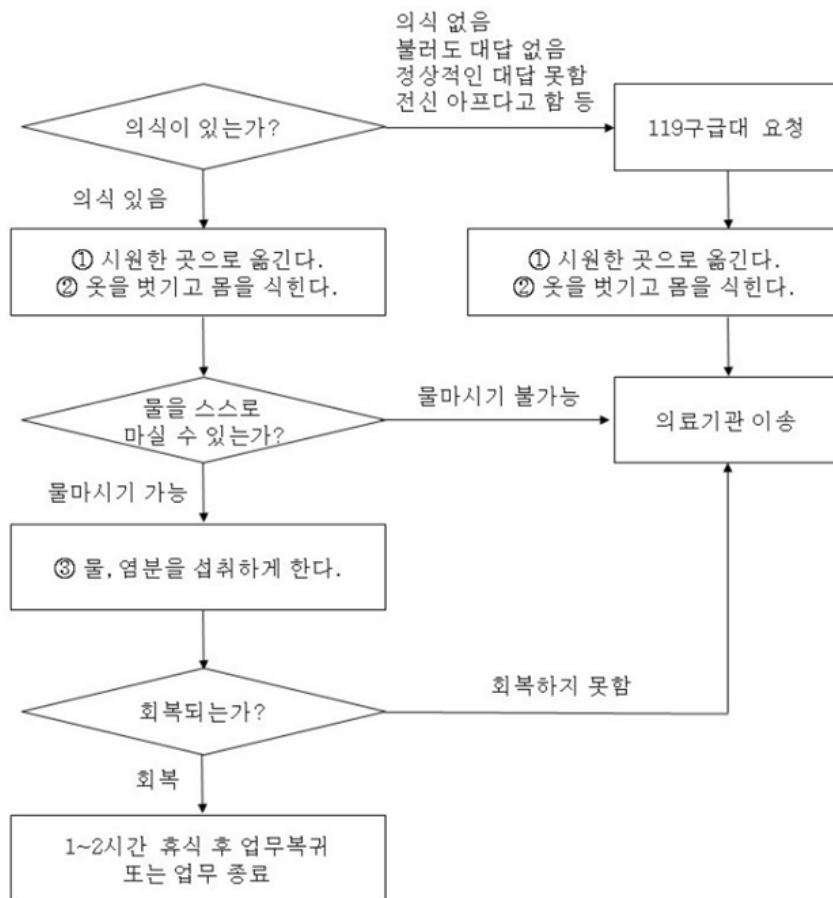
온열질환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치명적일 수 있는 열사병과 다른 온열질환과의 구별이 필요하다. 온열질환의 종류, 질환에 따른 주요 증상, 대응 방법은 아래와 같다.

- ① 열사병
 - 주요 증상 : 의식상실(또는 기절), 현기증, 두통, 경련 등의 전구증상, 뜨겁고 마른 피부, 체온 40℃ 이상
 - 현장 대응 방법 : 즉시 119 신고 및 이송, 냉수 뿌리기, 선풍기, 얼음 마사지, 옷을 모두 벗김
- ② 열탈진
 - 주요 증상 : 두통, 구역감, 현기증, 무기력증, 갈증
 - 현장 대응 방법 :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 물과 염분 보충*
- ③ 열경련
 - 주요 증상 : 수의근(의식적으로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는 근육)에 통증이 있는 경련 발생, 사지 동통, 발작적 경련
 - 현장 대응 방법 :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 물과 염분 보충*

- ④ 열허탈
 - 주요증상 : 전신권태, 탈진, 현기증, 의식상실(기절), 심박수 증가, 혈압 저하, 정상 체온
 - 현장 대응 방법 :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 물과 염분 보충*, 의식 없는 경우 의료기관 이송
- ⑤ 열피로
 - 주요증상 : 구갈(목마름), 소변량 감소, 현기증, 사지의 감각이상, 보행곤란, 실신
 - 현장 대응 방법 :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 물과 염분 보충*, 의식 없는 경우 의료기관 이송
- ⑥ 열발진
 - 주요증상 : 땀띠, 붉은구진
 - 현장 대응 방법 : 발생부위 냉각, 세척 후 건조

(*스포츠음료(이온음료), 알갱이가 없는 과즙주스, 물 1L에 소금 1티스푼 미만을 탄 소금물을 의미한다.
소금 혹은 식염정을 그대로 복용하는 것은 금한다.)

작업장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시 조치 흐름은 아래와 같으며, 온열질환이 의심되는 사례에서 의식 없음, 불리도 대답 없음, 정상적인 대답 불가능, 전신 아프다고 하는 경우, 물 마시기 불가능, 물 및 염분 보충 후에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한다.



<관련내용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 지침 (KOSHA GUIDE H-219-2022)

“야외 작업 중 벌에 쏘여 발생한 아나필락시스”

40대 남성으로 야외에서 작업 중 벌에 쏘인 후 수분 내에 발생한 전신의 두드러기와 어지러움, 식은땀을 주소로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작업자는 수년 전에도 벌에 쏘인 후 전신 두드러기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응급실에서 약물 치료 후 증상 호전되어 귀가하였다.



알레르기란 환경에 존재하는 특정 자극(항원)에 대하여 발생하는 면역 매개형 과민반응을 의미한다. 원인 물질에 감각이 되면 혈액에서 E 면역글로불린(IgE) 항체가 생성되고, 면역세포와 염증세포 등이 활성화된다. 이후 같은 물질에 접촉하면 피부의 가려움과 두드러기, 호흡곤란, 혈압 저하와 두근거림, 어지러움과 의식 소실 등과 같은 아나필락시스(알레르기성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 후 같은 자극에 노출되면 아나필락시스의 위험이 매우 증가한다.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발생하면 응급 조치를 통해 혈압을 상승시키고 기도를 확보해야 한다. 이 때 에피네프린 투약을 근육주사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치료에 반응이 없다면 5분-15분 간격으로 3회까지 투약해 볼 수 있다. 수액 공급·산소포화도 저하시 산소공급도 중요하며, 보조적인 치료로 스테로이드·항히스타민제 등을 투약할 수 있다.

이처럼 아나필락시스 경험이 있는 경우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에피네프린 자가주사를 지참하고, 작업 중 같은 자극에 노출되어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발생하면, 에피네프린을 허벅지에 근육주사 후 응급실에 내원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아나필락시스 예방 생활가이드

- 원인 물질 노출 최소화
- 자신의 증상 원인물질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원인물질 정보가 담긴 카드 소지
- 응급상황을 위한 에피네프린 자가 주사기 휴대

〈관련내용 출처〉

알레르기 [Allergy] (분자·세포생물학백과)

아나필락시스 [anaphylaxis]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폐수처리 원료 제조 근로자에서 발생한 소세포폐암”

60대 남성으로 1986년부터 약 27년간 폐수 처리 원료 제조 종사자로 근무하신 분으로 약 40갑년의 과거 흡연력이 있으신 분이다. 불안정성협심증 증상으로 진료 및 검사 중 소세포폐암 진단을 받았다. 작업시에는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했으나 상황에 따라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하기도 했으며, 작업장 내 환기가 원활하지 않았고, 원료반응 과정에서 유해가스에 자주 노출되었다고 한다.



폐암은 암세포의 크기와 형태 등 병리조직학적 기준에 따라 소세포폐암과 비소세포폐암으로 나뉜다. 현미경으로

확인되는 암세포의 크기가 작은 것은 한자의 ‘작을 소(小)’ 자를 써서 소세포폐암이라 한다. 주로 폐 중심부의 기도(기관지, 세기관지)에서 처음 발병하는 소세포폐암은 폐암의 15~25%를 차지하며, 전반적으로 악성도가 강해 다른 장기나 반대편 폐, 종격동에 전이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소세포 폐암이 비소세포 폐암과 가장 대비되는 특징은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에 반응률이 현저히 높다는 것이다. 70%가 넘는 환자가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하며, 90%가 넘는 환자가 방사선 치료에 반응한다. 그러나 재발률이 높으므로 전체적인 경과는 비소세포 폐암보다 좋지 않다.

폐암의 위험요인으로는 흡연, 간접흡연, 석면, 중금속·화기물질 노출 및 특정 작업 종사와 관련된 직업적 노출, 방사성물질, 디젤 연소물·중금속 발암물질 및 미세먼지와 같이 장기간 다량의 노출이 있는 환경적 요인, 후천적인 유전자 이상에 따른 유전적 요인이 있다. 무기산의 미스트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폐암에 제한적인 근거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폐수처리 시에는 무기산의 미스트 등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평가 및 노출 저감이 필요할 수 있다.

〈관련내용 출처〉

소세포폐암 [small cell lung cancer]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소세포 폐암 (국가암정보센터 암정보, 국립암센터)

그 외 직업병 사례들

직업성 중독

- ◆ 식품공장 전처리실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례
- ◆ p-toluidine 노출에 의한 직업성 중독
- ◆ 알곤가스 노출 이후 발생한 직업성 중독

직업성 피부질환

- ◆ 요양보호사에서 발생한 진균 감염
- ◆ 용접공에서 장갑으로 인해 발생한 접촉성 피부염

온열질환

- ◆ 골프장 제초업 종사자의 온열질환

직업을 알면 건강이 보입니다

직업병엔 도너리(Don't worry)가 같이 합니다.



직업병 안심센터

대상

업무와 관련해 불편한 증상, 질환을 경험한 분



대표적인 직업성 질병

급성중독

(화학물질 노출 후 발생한 이상 증상 또는 질식, 열사병 등)

호흡기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질성폐질환, 천식 등)

신경계질환

(말초신경병증, 파킨슨증후군 등)

피부질환

(접촉성 피부염, 백반증 등)

간질환

(독성간염 등)

직업성 암

(폐암, 혈액암, 비인두암, 방광암, 신장암 등)

무엇을 도와주나요?

- 직업성질환 진단, 원인파악
- 직업병 예방 및 환경개선 지원
- 산재요양 필요여부 상담 등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초기 진료비 일부 지원
- 이후 직업성질환 진단 비용 일부 지원 (단, 외상성사고, 근골격계질환, 소음성난청 등은 제외)

문의 ☎ 1588-6798 (전국대표번호)

인천 직업병 안심센터
인하대병원
☎ 032)890-0843

강원 직업병 안심센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033)741-0342

경기남부 직업병 안심센터
아주대학교병원
010-2438-6798

경기북부 직업병 안심센터
한양대구리병원
☎ 031)560-2725



중부 직업병 안심센터
www.kodsc.org